

보도자료

(주)티씨케이 특허 무효 소송 및 심판에서 모두 승리

특허침해 기업에 단호한 법적조치 진행 예고

SiC 포커스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반도체소재부품 기업 (주)티씨케이가 (주)디에스테크노와 벌여온 특허 무효 소송 및 심판에서 연이어 승소하였다. (주)티씨케이는 반도체소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업체로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CVD SiC 포커스링을 주력제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종래에는 CVD SiC 반도체소재부품을 제조할 때 CVD 챔버의 온도나 압력과 같은 전통적인 증착 조건만을 고려해온 반면, (주)티씨케이는 CVD 챔버에서 SiC 원료가스를 분사하는 여러 개의 노즐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CVD SiC 포커스링의 내플라즈마성을 향상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효율적인 공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주)티씨케이는 이러한 자사 특유의 CVD SiC 포커스링과 그 제법에 관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유효성이 최근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 의해 연이어 확인된 것이다. 지난 13일 특허법원은 (주)디에스테크노가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2021 허 3420)에서 (주)티씨케이의 SiC 포커스링 특허(제 10-1914289 호) 중 제법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특허심판원이 (주)디에스테크노가 제기한 무효심판(2021 당 3401)에서 (주)티씨케이의 또 다른 SiC 포커스링 특허(제 10-2208252 호)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심결을 함에 따라, (주)티씨케이의 주요 특허들에 대한 특허 무효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되었다. 특허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기함에 따라 진행된 주요 특허 무효소송 및 심판에서 (주)티씨케이가 모두 승소함에 따라 (주)티씨케이는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것이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주)티씨케이는 금번 승소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의 절차를 촉진시켜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은 물론, 다른 특허 침해 회사들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티씨케이의 경영진은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이를 중심으로 한 경영과 함께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 이후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자료문의처 : 박광재 전무(031-678-0043)